

大學附設研究所의 활성화 방향



사 회 : 韓 相 福 (서울大 人類學科)
 참 석 : 黃 元 九 (延世大 歷史學科)
 金 世 源 (서울大 貿易學科)
 安 承 泰 (漢陽大 數學科)
 洪 鍾 徽 (高麗大 金屬工學科)
 원고정리 : 崔 敬 桓 (本 協會 敎育資料部)
 일 시 : 1986년 9월 12일
 장 소 : 본 협의회 회의실

專門化된 研究所를 지향해야

司 會 저도 대학에서 부설연
 구소를 4년 동안 책임 맡았고,
 또 그 전부터 10여년 동안 관
 계해 왔읍니다만, 경험으로 미
 루어 볼 때 대학 부설연구소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專門性이
 라고 할까 特殊性이라고 할까
 이러한 것이 아니겠는가 생각
 됩니다. 물론 綜合大學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갖추어야 할

人文科學研究所, 社會科學研究所, 自然科學研究所를 비롯하여 그 밖의 여러 학문 분야의 연구소가 있어야 하겠지만, 무엇보다도 각 대학이 학교의 특성에 맞추어 중점 연구소를 육성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야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분야에서 명실공히 自他가 모두 인정할 수 있는 特殊화된, 專門화된 부설 연구소가 될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럴려면 財政적인 뒷받침을 비롯해서 연구소 소장의 資質, 전임 연구원의 확보, 그리고 업적 등이 그만큼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우선 대학 부설연구소의 組織·機構, 다시 말하면 연구소장의 자질과 임기, 전임 또는 겸임 연구원의 확보와 대우 등의 문제부터 말씀을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安承泰 선생님부터 대학 부설연구소의 조직·기구의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로 하죠.

安承泰 제가 조사한 바로는, 基礎科學研究所가 대부분의 대학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연구소장은 교수가 맡고 있으며, 간사는 교수 중에서 한 사람이 맡아 보고 있습니다. 직원은 대부분 한 사람인데, 助授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설연구소의 운영을 위해 대개 대학마다 運營委員會가 조직되어 있습니다.

洪鍾徽 高麗大의 경우에는 生産技術研究所가 工科大學에 부설되어 있습니다. 저희 경우는 공과대학 교수 전원이 다 연구원으로 되어 있는데, 人員은 50

명입니다. 그 밖에 委屬研究員을 두고 있습니다. 연구소장의 임기는 2년이며, 사무직원과 간사가 있어서 사무적인 일을 맡아 보고, 그 나머지는 전부 공과대학의 교수가 맡아 보고 있습니다.

저희 生産技術研究所는 生産業體와의 이른바 產學協同體制를 구축해서 생산업체로부터 연구비를 받아 공동 연구를 통해 그 결과로써 산업체에 이바지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외부로부터 연구비를 받으면, Overhead를 떼서 운영비로 쓰고 있습니다. 연구 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生産技術研究所의 工學論文集에 발표하는데, 산업체와 각 대학에 발송하여 공동 연구할 수 있는 기초 자료로 제공합니다.

金世源 서울대학교의 社會科學研究所도 다른 대학의 부설연구소와 비슷합니다. 소장이 1명 있고, 보직 교수로 부소장, 연구부장이 각 1명씩 있습니다. 그 밑에 연구원이 社會科學 전 분야에 걸쳐 있습니다. 그 밖에 대학 본부에서 지원하는 행정직원이 2명 있고, 전임 조교가 2명이 있습니다.

문제 제기라고 할까요. 그런 것을 말씀드리자면, 研究所設立이 合理的인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요즘 각 대학에 社會科學研究所뿐만 아니라 基礎科學研究所, 自然科學研究所 등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데, 이러한 연구소들이 체계적으로 어떤 원칙하에 설립되지 않고, 그때 그때 연구소장의 영향력에 좌우되



“우리나라 대학 부설연구소 중에는 유사한 성격의 연구소가 너무 많습니다. 학교 및 지역적 특성, 그리고 현실 여건에 따라 되도록이면 특색 있는 연구소를 지향해야 합니다.” (황원구 교수)

면서 설립되고 있습니다. 일단 설립되고 나면 연구소 운영이 사람 중심으로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정부에서 체계적인 支援體制를 세우거나 학교에서 어떤 運營原則을 정해서 연구소를 중점적으로 육성하기보다는 어떤 분이 연구소장 자리에 앉으면 그 분의 대인관계가 좋으냐에 따라 예산을 많이 확보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연구소가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연구소 설립 자체를 정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長期的인 계획이나 학교 運營方針에 따라, 또는 연구 방향에 따라 연구소를 세워야 特殊화된, 專門的인 연구소가 될 수 있고, 또 제한된 資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구소장을 補職으로 생각지 말아야

黃元九 그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하여, 우리나라 대학 부설 연구소가 안고 있는 組織·機構上의 문제점을 몇 가지 지적하기로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나라 대학 부설 연구소 중에는 그 성격이 유사한 연구소가 너무 많습니다. 학교의 특성이나 지역적인 사정, 그리고 오늘날의 여건에 따라 되도록이면 특색 있는 연구소를 지향해야 된다고 봅니다.

둘째, 연구소장을 보통 行政 補職과 같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연구소장은 연구소를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 것이라는 자기 나름대로의 비전이나 經綸이 있어야 합니다. 所長을 맡으면 2년, 4년, 6년 임기 동안에, 또는 임기에 구애받지 않고 경륜을 가지고 밀고 나가야 하며, 또 학교에서는 그것을 이해하고 협조해서 충분한 뒷받침을 해주어야 바람직한 연구소가 생겨날 수 있어요. 敎務委員 물러가면 禮遇로 한 자리 주고, 나이 육십 되었으니 한 자리 해 보라 하는 사고방식이 연구소가 발전되지 못한 큰 이유 중의 하나입니다. 그 사람들 아무 것도 안 해요. 교수들로부터 연구는 문 받으면, 같은 학교의 교수의 논문이니까 심사도 하지 않고 잡지를 내요. 형식적으로는 심사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심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국내에서만 통용되는 논문집이 되고 말아요. 철저한 논문

심사가 필요합니다.

세째, 專任研究員 확보 문제인데, 이 점이 제일 심각합니다. 敎授가 겸임한다고 하지만, 우리의 형편상 그건 어렵습니다. 강의만 해도 바쁜데, 요새는 학생 지도니 해서 시간을 뺏기고 나면 연구할 수 있는 시간이 허용되지 않아요. 일본의 東洋文化研究所나 京都大學의 人文科學研究所에는 전임 연구원이 있어서 연구만 전담해요. 講義는 大學院에서 한 강좌 정도 합니다. 그것도 필요에 의해서 하죠. 물론 1년에 논문을 1편 내야 한다, 또는 2년에 1편 내야 한다는 규제가 있긴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자기 연구를 위해 책도 충분히 볼 수 있고, 외국과의 학문 교류나 인적 접촉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본에서는 세계 수준의 연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전임 연구원이 확보되어야 대학 부설 연구소의 조직의 활성화나 그 성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구체적인 연구소 亂立이 앞으로 계속될 경우, 아예 전부 폐지하고 새롭게 연구소를 꾸려나가야 합니다. 그 改善策을 大學敎育協議會에서 만들어서 대학 총장들에게 간곡하게 부탁하여 연구소를 제대로 육성·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연구소의 발전이 곧 대학의 발전이 아닙니까.

연구소 난립을 막아야

金世源 蒞선생님 말씀 중에서 두 가지는 저도 전적으로 동감

합니다. 하나는 연구소 난립 문제인데요, 대학별로 전문화된 연구소가 있어야 합니다.

餘談입니다만, 우리나라에 共産圈研究協議會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7개 대학의 공산권 문제를 연구하는 연구소를 중심으로 만들어졌는데, 거기에서 연구소간의 상호 협의를 통해 研究分野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대학별로 연구소를 전문화하자는 것이지요. 예를 들면 延世大의 東西問題研究院은 東歐圈을 전문으로, 韓國外國語大의 蘇聯 및 東歐問題研究所는 소련을, 그리고 漢陽大의 中·蘇問題研究所는 中·蘇 관계를 중심으로 연구하는 등 한 분야에만 치중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市場이 좁아 연구비 나올 곳이라든지 需要 등이 빈하기 때문에 서로 조정해서 특색 있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연구소의 活性化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연구물의 축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연구소가 亂立하다 보니 연구된 것을 되풀이해서 연구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연구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도 연구소가 전문화되어야 합니다. 共産圈研究協議會 같은 研究協議會를 구성하는 것도 연구소 난립을 방지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이며, 또 연구소 자체의 발전을 위한, 다시 말하면 연구소의 전문화를 위한 하나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專任研究員 확보 문제입니다. 연구소에서 연구를 전담하는 전문가를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다른 한편으로

교수들이 한 2년간 研究教授가 되어 연구소에 와서 2년간 연구만 하다가, 다시 돌아가 강의를 하는 이른바 研究教授制를 환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연구소에 전입하는 연구원을 확보하는 것보다도, 教授要員들이 일정기간 교체하면서 연구도 하고 강의도 하는 식으로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는 겁니다.

전임 연구원 확보가 시급

司 會 전임 연구원의 확보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연구소에 전임 연구원이 없이 교수요원이 겸하게 될 경우, 그들은 책임감을 가지지 않게 되며, 또 전적으로 시간을 바쳐서 연구할 수도 없습니다. 1985년도 學術振興財團에서 조사한 研究員 現況을 보면, 人文科學分野의 연구소의 경우 겸임 연구원이 2,866명인데 비해, 전임 연구원은 1명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社會科學分野는 겸임 연구원이 4,719명인데 비해, 전임 연구원은 12명, 理學分野는 겸임이 2,191명인데 비해, 전임이 10명, 工學分野는 겸임이 2,404명인데 비해, 전임이 5명, 醫·藥學分野는 겸임이 1,240명인데 비해, 전임은 3명, 農·水·海洋分野와 藝·體能分野의 겸임은 각각 1,100명, 467명인데 비해 전임 연구원은 전혀 없습니다.

사실상 전임 연구원은 강의를 담당하는 교수와 동등한 자질을 갖추어야 하고, 또 대우도 동등하게 해주어야 합니다. 비록 겸임을 한다 하더라도 연

구하는 시간만큼 교수 부담을 줄여 주어야 합니다. 물론 시간을 감면해 주는 만큼 봉급 算定도 그에 준해야겠죠. 실제로 研究手當도 연구에 시간을 얼마만큼 쓰느냐에 따라 달리 책정됩니다.

研究所長 문제도 黃선생님의 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소장으로 그 분야에 탁월한 능력과 자질을 갖춘 사람을 시켰으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사람을 10년이고 20년이고간에 계속하게 해야, 長·短期計劃을 세워 연구소 운영을 일관성 있게 해 나갈 수 있지, 행정적으로 1~2년 補職 안배하듯이 하면 연구소 운영이 전혀 일관성 없고, 전문화된 연구소의 특성을 살리지도 못합니다. 金世源 선생님께서 소장에 따라 연구소의 운영이나 업적이 다르다고 하셨지만, 저는 그런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소장이 연구소를 어떤 방향으로 이끌고 나가느냐에 따라 연구원의 확보나 연구과제의 특징이 달리 나타납니다.

독일의 연구소의 경우, 소장을 뽑는 데 몇 년이 걸리더라도 기다립니다. 한 사람을 뽑아 놓으면, 특별히 잘못된 사유가 없는 한 그 사람이 20년이고 30년이고 계속합니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그만두게 되면, 국내에서 적합한 사람을 찾습니다. 그러나 適格者가 없으면 연구소를 아예 폐쇄해 버립니다. 그렇게 해야 국내외적으로 그야말로 명실공히 인정을 받는 연구소가 됩니다.

대학 부설연구소도 그 학문



“공과계통은 막대한 비용의 실험기 자재가 필요하기 때문에 독립된 연구소를 설립한다는 것은 무리입니다. 국가적 차원에서 예산을 지원하지 않고서는 전문적인 연구소를 만들 수 없습니다.” (홍중희 교수)

분야에서는 안팎으로 누구에게나 다 인정받을 수 있는 연구소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려면 전문화되고 특수화된 연구소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黃선생님께서 東京大學의 東洋文化研究所를 말씀하셨지만, 京都大學의 東南亞研究所 같은 地域研究所는 일본 어디에서나 인정받습니다. 東南亞 관계 연구과제가 있으면, 文部省에서는 연구비를 거기에다 줍니다. 또 사람들이 東南亞 관계 자료나 인적 자원을 찾을 때도 거기를 찾아갑니다. 이런 식으로 해 나간다면, 연구소장의 자질, 임기, 그리고 전임 연구원의 확보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경우에 따라 전임 연구원의 확보가 안 되면, 교수요원이 겸할 수도 있지만…….

黃元九 教授要員을 연구원으



“대학 연구소의 활성화를 위해선 외부 지원에 의한 자금 확보가 큰 과제입니다. 기업의 기금에 대해서 세금을 감면해 준다면 연구소의 자금 확보는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한상복 교수)

로 확보한다고 하셨는데, 國立大學과는 달리 私立大學의 경우 한 科의 전임 교수가 10명 이상이 되지 않습니다. 외국의 경우는 한 科의 교수가 20명 내지 30명이 됩니다. 외국과 같이, 講座를 하나나 둘 맡으면 겸임을 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의 경우 補職教授 외에는 전부 週當 9시간 강의를 해야 해요. 강의만 해도 바쁜데, 오새는 학생 지도니 해서 너무 바쁩니다. 교수요원을 연구원으로 겸임시킨다면, 學科의 專任教授定員을 3배로 增員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겸임해서는 안 됩니다.

安承泰 自然科學系統은 조금 다릅니다. 연구소의 전임 연구원은 대부분 大學院教育에서의 實驗實習系統을 전담합니다. 일 본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들은 碩·博士課程을 이수한 학생들인데, 연구소에서 얼마씩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理學分野의 연구소가 전국 대학에 86개 있습니다. 겸임 연구원이 2,191명인데, 이 숫자가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數學, 物理學, 化學이 대학 1학년의 教授科目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전임 연구원은 10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10명도 분명히 實驗系統的 助教일 것입니다. 엄격하게 따진다면 전임 연구원은 全無할 것입니다.

대학 부설연구소를 活性化시키기 위해서는, 國立에 대해선 정부에서 연구소의 基金을 보장해 주어야 하고, 私學에 대해선 사학의 長이 관심을 가져야만 합니다. 저희 학교 이야기를 해서 안 됐지만, 漢陽大學의 中·蘇問題研究所의 경우 상당한 액수를 투자했다고 들었습니다. 거기에도 전임 연구원이 몇 분밖에 되진 않지만, 업적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研究所長이 능력이 있으면, 연구소 운영이 어느 정도 되기가 하겠지만, 혼자 힘으로선 너무 벅잡니다. 財團에서 지원을 해주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그런 점에 구애받지 않으려면 연구소 단독으로도 外部 財團으로부터 基金을 확보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洪鍾微 工科系統은 인문·사회과학 분야에 비해 전혀 異質적입니다. 독립된 연구소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지만, 공과계통은 막대한 비용이 드는 實驗器資材가 필요합니다. 현

재 대학에서도 적절한 실험기자재를 갖추지 못해 實驗實習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독립된 연구소를 설립한다는 것은 무리입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豫算을 지원하지 않고서는 전문적인 연구소를 만들 수 없습니다. 연구소를 활성화시키는 방안으로서 각 분야에 공통된 것은 研究教授制를 활용한다든지, 또는 각 연구소에서 나오는 논문집의 발간비를 업적에 따라 보조해 주는 것 정도겠지요.

연구소 자체 기금을 확보해야

司會 자연히 豫算問題로 화제가 넘어가는데, 연구소의 運營費나 研究支援費에 관해 논의를 해 보기로 하죠. 연구소의 예산이 절대 부족하다, 연구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연구비가 제한되어 있다는 것이 공통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연구소의 운영비나 연구비를 自體 豫算과 外部 支援豫算으로 나누어 볼 때, 대학 부설연구소라면 자체 예산을 어느 정도 확보해야 한다고 봅니다. 基金의 형태로나, 또는 人件費나 施設費를 포함해서 해마다 예산을 확보해야, 연속성 있는 長期計劃을 세울 수 있습니다.

운영비도 그렇고 연구지원비도 그렇고, 대학 자체에서 부설 연구소에 얼마만큼 지원한다면, 글썽요. 전연 없다고 봐도 좋을 거예요. 대부분의 연구소가 그러하지만, 외부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아야 운영할 수 있음

니다. 연구비를 지원받으려면 지금까지의 연구 업적과 연구할 수 있는 능력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이때 연구소장과 연구원이 얼마나 능력 있느냐가 문제되는 거죠. 연구의 능력도 갖추어야 하지만, 연구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出處, 절차, 통로를 다 알고, 또 研究課題를 말할 수 있는 아이디어나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능력도 갖추어야 합니다. 또 自體 負擔 없이 外部에서 주는 돈으로만 하겠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計劃書를 제출했다고 해서 돈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WHO에서 7년 동안 社會經濟研究運營委員會를 맡고 있는데, 거기서 하는 일이란 豫算을 짜고, 외부에서 연구 계획서가 들어오면 그것을 評價·支援·모니터해 주는 것입니다. 연구비를 주기 전에, 실제로 연구 능력이 얼마나 있는가, 연구원이 얼마나 확보되어 있으며, 그리고 연구 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는가를 직접 가서 확인해 봅니다.

所長이 능력이 있어야 되고, 專任研究員이 확보되어야 하며, 연구소가 專門化되어야 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을 두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黃元九 연구소장의 능력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연구소의 特色이 있어야 합니다. 연구소에서 어떤 課題를 연구하는데, 그 과제와 관련된 研究補助機關은 세계에 많이 있습니다. 요즘 學問活動이 流行性을 많이 띠는데, 유행에 좌우되지 않고 꾸준히 한 과제를 계

속해 나가면, 研究基金은 얼마든지 보조받을 수 있습니다.

연구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豫算이 제일 중요합니다. 저도 학교에서 가끔 그런 말을 합니다만, 학교에 들어오는 모든 研究費, 예를 들어 文敎部 學術研究助成費나 大學院研究費 등을 單一化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연구소를 중심으로 研究費 支援窓口를 단일화해서, 人文科學系統의 연구비는 人文科學研究所에 주고, 자연과학 계통은 自然科學研究所에, 사회과학 계통은 社會科學研究所에 전부 주는 식으로 해서, 대학교수의 연구는 연구소에서 전담하도록 해야 합니다. 敎務處나 大學院과 같은 行政機關에서 연구비를 관장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연구 논문을 當該 機關誌에 실게 되면, 기관지의 질이 향상될 뿐 아니라 업적도 축적되며, 예산도 많아집니다. 이것도 연구소를 活性化시킬 수 있는 한 방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金世源 연구소가 專門化되기 위해서는, 연구소에서 자체 연구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됩니다. 연구소에서 研究方向을 설정해서 교수들에게 이런 방향으로 연구를 추진해 달라고 해야 되는데, 자체 예산이 없기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연구를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부득이 외부로부터 연구를 가져와 연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몇 년 전에 이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정부에서 어떤 방향으로 연구를 해주면 연구비를

주겠다는 提案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서울대학교 社會科學研究所에선 그 課題를 집중 연구하기 위해 5개년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서울대학교만 주고, 地方大學에는 주지 않는다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해서, 지방의 某 國立大學에도 줘야 된다고 하더군요. 조금 있다가는, 또 그렇게 되면 地域感情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 해서 아예 건국 대학에 공개를 해버렸습니다. 결국 30여 개의 연구소, 협의회, 학회 등에서 연구비를 신청하게 되었는데, 제한된 財源을 안배하다 보니 어떤 연구소는 200만 원, 또 어떤 연구소는 300만 원씩 배당이 되었어요. 그러다보니 연구의 명분을 완전히 상실하게 된거죠. 地域間에, 또 大學間에 안배하다 보니, 연구가 중복되고, 게다가 업적도 중복되어, 논문이나 와도 읽지도 않습니다. 이런 일이 非一非再합니다. 정부에서 어떤 과제는 어떤 연구소에서 해라 하는 식으로 집중 지원해야, 연구소에서 장기 계획을 세워 집중적으로 연구할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 政策的으로 이런 점을 배려해야 됩니다.

安承泰 基礎科學分野의 경우 그런 것이 비교적 잘 되고 있습니다. 文敎部에서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特性分野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연과학 계통은 대부분 共同研究를 하는데, 어느 대학의 교수가 능력이 있거나 施設이 갖추어져 있다 할 때, 그 대학 연구소에 예를 들어, 粒子物에 관한 研究課題를

말입니다. 그러면 다른 대학의 교수도 그 팀의 一員으로 참여하고, 또 産業體와의 産學協同體制를 갖추어 산업체의 技術要員이 참여하기도 하고 정부의 요원이 참여하기도 하죠. 지난해에는 정부에서 5억을 배정했는데, 올해는 9억이 배정되었습니다. 전국 대학의 86개 기초과학 분야 연구소 중에서 현재 21개 연구소가 참여하고 있는데, 監督機關은 아니지만 研究協議會가 구성되어 情報交換도 해서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집중적으로 투자하곤 있지만, 아직도 資金이 부족합니다. 돈만 많이 대주면, 무엇이 이루어질 것 같아요. 물론 시간도 부족하지만 말이죠.

企業의 寄附金에 稅制惠澤을 주어야

司 會 그런 일은 연구소간의 連繫關係에도 해당되는 문제인데, 뒤에 다시 이야기하기로 하고, 어떻게 하면 연구소에서 많은 基金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냐는 문제에 관해 계속 이야기해 보기로 하죠.

黃元九 첫째는 産學協同體制가 잘 이루어져야 합니다. 돈을 번 財閥 1世는 돈을 잘 안 낸답니다. 2世부터는 돈을 쓸 줄 안대요. 돈을 안 벌어 왔으니까 그렇기도 하겠지만, 2世는 외국에 가서 공부도 하고 世上物情도 잘 아니까, 기꺼이 기부한다더군요. 앞으로는 기업에서 대학에 돈을 많이 기부하겠죠.

둘째는 稅法과 관계되는데, 기업에서 대학에 기부할 경우

稅制上的 惠택을 주어야 합니다. 외국의 경우 기업에서 대학에 10억을 기부하면, 10억에 대한 세계상의 惠택을 주지요. 세계상의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기금 확보가 어렵습니다. 학교에서 얼마 주는 것과 문교부에서 보조해 주는 것, 그리고 用役費 가지고서는 長期計劃을 세워 특색 있는 연구를 할 수 없습니다.

金世源 요즘 財閥企業들이 산하에 부설연구소를 많이 두고 있는데, 생산과 직결되는 工學系統의 연구소뿐만 아니라, 經濟·經營研究所를 비롯한 人文·社會系統의 연구소도 점차 늘고 있습니다. 稅制上的 惠택이 주어지거나 대학과의 연계가 이루어지면, 기업체 부설연구소의 운영비는 바로 대학에 들어와야 할 돈이라고 생각됩니다. 기업체 부설연구소의 研究課題를 보면 대부분 대학 부설연구소의 과제와 비슷합니다. 기업체에서 잡지들이 많이 나오는데, 대개 내용도 비슷하고 글을 쓰는 필자도 중복됩니다. 일종의 資源의 낭비이죠. 대학과 연계하여 資源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됩니다.

洪鍾徽 공과계통의 用役費에는 稅制 惠택이 있습니다. 기업측에서는 연구 결과의 덕을 보기도 하고, 세계 惠택을 받기도 하죠. 그러나 基金은 받고 있지 않습니다.

司 會 대학 자체의 지원만으로는 기금 확보가 어렵겠죠. 外部支援에 의한 기금 확보가 제일 큰 課題입니다. 기업에서 기금을 덩어리로 주되, 세금을 내

는 데서 減免해 준다면, 연구소의 기금 확보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겠죠.

安承泰 외국에서 대학의 實驗 實習器資材를 도입할 경우에도 많은 세금을 내는데, 이러한 실정에서 정부가 대학 부설연구소를 完善화하는 조치를 취하겠습니까? 어렵습니다.

司 會 제가 일하던 연구소에서는 20년 동안 기금을 조금씩 축적해 왔습니다. 연구비를 받으면, 일부를 Overhead로 떼는데, 그걸 거의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보통 연구소에서 갖추고 있는 시설이나 人的 資源으로 서서비스를 해주는데, 그것은 필요하고 또 그 경우는 인정해 줍니다. 그래서 그에 해당되는 것을 축적해서 자체 기금으로 확보합니다. 연구소가 그 자체 스스로 굴러갈 수 있도록 운영되기 위해서는 자체 기금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그럴려면 연구소장 및 연구원이 “연구소가 내꺼다, 우리 일이다”라는 책임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 의식이 없으면 기금 확보가 어렵습니다.

金世源 무슨 이야기이고 하니, 받아야 할 서서비스의 代價로 조교들에게 주는 몫을 基金으로 확보한다는 것입니다. 이들 조교들에게는 봉급이 나가니까요. 말하자면 자기 뼈 깎아 먹는 이야기이죠.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기금 마련이 안 됩니다. 理想的으로 말씀드린다면, 저희 社會科學研究所 같은 경우는 10억 정도의 기금이 있어야, 1억 정도로 자체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연구를 추진할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 기금을 충분히 보조해 주어야 합니다. 洪鍾徽 기금 보조는 고사하고, 稅制 惠澤만이라도 해주면 되는데…….

연구소간의 네트워크이 확립돼야

司 會 研究所간의 連繫關係로 화제를 돌리기로 하죠. 어떤 연구소에서 연구를 하는데, 다른 대학의 교수를 필요로 할 경우나 같은 분야를 연구할 때 연구소간의 네트워크이 확립되어야 하는데, 아직도 우리나라에서는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黃元九 專任研究員의 확보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또 教授要員이 많지 않은 현실에서는 연구소간의 제휴가 시급합니다. 연구소에서 나오는 機關誌도 자기 대학 교수의 논문으로는 양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연구소간의 협력 관계가 더욱더 필요합니다.

司 會 우선은 국내에 있는 대학 부설연구소간의 연계가 되어야 하고, 거기에서 좀더 욕심을 가진다면 외국의 연구소나 研究機關과의 네트워크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럴려면 그만큼 수준을 올려야겠죠.

黃元九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延世大의 國學研究院에는 客員研究員制, 또는 訪問教授制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 20명 다녀갔습니다. 외국인이 韓國國學 研究를 하기를 원한다면, 1년 동안 연구실이나 訪問教授 직함을 주고 연구하게끔 해줍니다. 그 사람이 귀국하더라도

이쪽과 연락을 계속 취하게 되고, 또 그러다 보면 그 사람이 소속한 대학이나 연구소와 자연스럽게 연계관계를 맺게 됩니다. 각 연구소에 客員研究員制나 訪問研究員制를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통해 외국의 관련기관과 협력관계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洪鍾徽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그런데 그럴 경우 대학에서 최소한의 空間이라도 확보하여 연구실을 마련해 주어야 하는데, 그럴 여건이 되어야 말이지요.

司 會 저희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저희 연구소의 경우 海外研究員과 國內研究員이 있습니다. 해외연구원들은 해외에서 연구비를 타서 國內에서 연구를 하거나, 아니면 국내에서 함께 연구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해외와의 연구 정보를 교환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되지요.

洪鍾徽 인문·사회계통보다는 공과계통의 연구소간의 연계관계가 잘 되어 있습니다. 특수성이나 전문성을 띤 것을 연구 주제로 해서 大單位研究를 하는데, 연구비는 대부분 億臺單位입니다. 그래서 혼자서는 연구가 안 됩니다. 자연스럽게 副題를 여러 개로 해서 여러 대학이 공동 연구를 하거나, 일본이나 미국, 또는 독일의 研究陣과 공동 연구를 합니다. 욕심이라면 더 많은 연구비를 받아 연구활동을 활발하게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공과계통에는 科學技術處가 그것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黃元九 연구소장과 전임 연구원은 해외 나들이를 많이 해야



“정부에서 정책적 배려가 없이 연구비를 지역간 혹은 대학간에 안배하다 보니 연구 및 업적이 중복됩니다. ‘어떤 과제는 어떤 연구소에서’ 하는 식으로 집중 지원해야 장기계획을 세워 집중적으로 연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김세원 교수)

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많이 만나야 됩니다. 연구실에 앉아서 편지를 하거나 전화를 하는 것만으로는 어렵습니다. 부지런히 뛰어야 연구비를 지원받거나 협력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洪鍾徽 典型的인 예가 각 學會의 會長입니다. 외부로부터 지원을 받지 않으면 학회가 운영이 안 됩니다. 補職으로 생각해선 안 됩니다. 구걸이라고 표현하면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좇아다니면서 때로는 구걸도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연구비를 따거나 협력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구를 활성화시켜야

司 會 우리나라의 경우 基礎研究와 政策研究의 균형이 안 맞는데, 어떻게 하면 기초 연구



“기초과학 분야에서는 아직도 산학협동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비록 당장 활용되지 못한다는 점은 있지만, 개발 연구가 한계점에 도달한 현실을 고려할 때 기초과학 분야에 대한 산업체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안승태 교수)

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가에 대해 논의해 보기로 하죠.

黃元九 : 기초과학이 단단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 위에서 응용과학이 발달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流行性 學問에만 치중하고 기초과학은 등한시했습니다. 요즘은 정부에서도 自然科學의 基礎部分에는 다소나마 신경을 쓰곤 있지만, 人文科學의 기초 부분에는 전혀 배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10년, 20년 후면 아마 후회할 것입니다.

洪鍾徽 공과계통에도 응용뿐만 아니라 기초도 있습니다. 연구비 신청시 尖端技術이나 新素材가 아니면 연구비를 배정받을 수 없습니다. 기초 부문에 연구비를 많이 할당해야 합니다.

安承泰 工學分野에서는 產學

協同이 비교적 잘 되고 있습니다. 요즘은 조금씩 달라지고 있긴 하지만, 기초과학 분야에서는 아직도 산학협동이 제대로 안되고 있습니다. 科學技術研究에는 세 단계가 있습니다. 基礎研究, 應用研究, 그리고 開發研究가 그것입니다. 우리나라는 輸出을 장려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開發研究에만 치중해 왔습니다. 외국에서 기술을 도입하여 개발 연구를 해 왔는데, 이것도 한계점에 도달했습니다. 새로운 것을 개발·발명해야 되는데 기초가 없으니까 어렵습니다. 개발 연구가 지금 先進國 수준에 도달했다 하더라도 그 이상은 나아갈 수 없습니다. 개발 연구는 주로 산업체에서 하는데, 工大와 관련이 있어 상호 협력을 하곤 있지만, 數學 物理學 같은 純粹科學은 당장 써먹을 수 없으니까 거들떠 보지도 않습니다.

司 會 자연과학 분야의 경우 基礎研究에 대한 지원을 韓國科學財團에서 하고 있지만, 인문과학 분야의 경우 그런 기관이 전혀 없습니다. 文敎部나 學術振興財團에서 관심을 갖곤 있지만, 아직까지는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저는 기초 연구가 大學敎育, 특히 대학 講座의 훈련과 직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독일의 경우 科의 명칭이 研究所 (institute)인데, 研究支援費 중에서 기본적인 것이 聯邦政府에서 주는 講座研究費입니다. 교수의 강의와 연구가 직결되어 있습니다. 프로젝트를 해서 報告書 하나 내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기초를 단단히 하는데 쓰이는 연구비입니다. 우리의 경우 전혀 없습니다. 대학 강좌와 직결하여 기초 연구를 해 나가고, 그것을 전반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무엇이든지 보고서 위주로 연구 프로젝트를 주니까, 사실상 보고서를 만들기 위한 연구를 합니다. 대학교육의 질을 높이는 것이 바로 기초 연구 아닙니까?

金世源 產學協同財團에서 나오는 연구 지원비 지침서에 보면, 전부 輸出 촉진과 기술 개발과 관련되는 것입니다. 理工系統의 경우 기업체에서 필요성을 인정하니까 그런대로 기초 연구를 지원하지만, 人文·社會系統의 경우 기초 연구를 위한 지원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黃元九 인문분야는 더 합니다. 사회분야는 政策研究나 기타 用役이 있지만, 인문분야는 정책 연구는 커녕 용역도 없습니다. 학교에서 몇 푼 주는 것이 고작이죠. 일본이나 독일이 戰後에 급격하게 성장한 것은 기초가 단단한 데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런 것을 인식해서 인문과학뿐만 아니라 사회·자연과학의 기초분야에 중점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당장 햇빛 볼 수는 없지만 10년이나 20년 후의 앞날을 내다보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司 會 '70년대, 朴鑛贊 文敎部長官은 인문·사회·자연과학의 기초 연구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었었습니다. 그때

자연과학 분야의 경우 趙完圭 선생이 예를 많이 셧었습니다. 그리고 자연과학 분야는 그나마 韓國科學財團이 있어서 어느 정도 돼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문·사회과학 분야에는 그렇게 나서서 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대학 자체에서 어떤 행동을 취하여 정부나 관련기관에 강력하게 주장해야 합니다. 金世源 사회적인 風土가 바꾸어져야 합니다. 기업이나 정부 뿐만 아니라, 대학 내에서조차 당장 써 먹을 것을 중시하고 있습니다. 應用이나 開發은 기초의 결과로서 나오는 것인데... 약간 餘談이지만, 국민학교나 중학교 교과서에 經濟分野에 관한 글이 나옵니다. 이젠 경제가 무엇인가를 알려 주는 글이 아니라, 商工部 政策報告같은 같아요. 뒤의 결론 부분을 보면, 우리나라 경제의 시급한 課題는 技術開發과 市場의 多邊化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직접적으로 학생들에게 말할 게 아니라, 10년, 20년을 내다보고 경제에 관한 기초적인 이론을 가르쳐 주어야죠. 당장 써 먹을 것을 중시하는 사회풍토가 바뀌지 않으면, 기초분야에 대한 투자는 어려울 것입니다.

司 會: 政策研究와 產學協同의 현황, 문제, 그리고 개선점에 대해 말씀을 나누기로 하죠.

洪鍾微 理工分野에선 산학협동이 비교적 잘 되고 있습니다. 산학협동이란 것은 대학에서 기초 연구를 하고, 기업체는 그것을 응용·활용하는 연구를 하여 서로 호혜를 맞추는 것입니다. 일본이 經濟大國으로 부상

한 것은 산학협동체제가 굳건한 데에 말미암은 것입니다. 대학은 워낙 가난한 곳이고, 또 기초 연구는 業體의 이익으로 환원되기 때문에, 기업체에서는 인색하게 굴지 말고 많이 투자해야 합니다. 그런데 기업체에선 당장 利文이 안 남으면 안 합니다.

司 會 큰 기업체는 대개 자체 연구소나 연구실을 갖고 있는데, 그것과 대학 부설연구소와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洪鍾微 앞서 말씀드렸듯이, 공과계통에는 부설연구소가 獨自的인 연구소 기능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각 科에 비치된 실험기구를 써서 연구하니까, 單位研究所간의 연계는 없습니다. 산업체와 공과대학간의 연계죠. 공과대학 부설연구소는 사실상 有名無實합니다. 예를 들어, 반도체를 연구한다 하면, 반도체와 관련된 학과에서 기업체와 연계를 맺어 연구합니다. 교수가 자기 名義로 연구 프로젝트를 받으면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연구소 명의로 연구비를 받습니다. 그러므로 실질적인 연구는 학과에서 합니다.

安承泰 학과에 研究人力과 施設이 확보되어 있으면, 用役을 따서 연구를 하죠. '70년대 某企業에서 학교에 기부금을 아무 조건 없이 준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求人難이 심각하였기 때문에 졸업생을 많이 데리고 가기 위해 준 것이죠. 지금은 거꾸로 학교측에서 기업에 하소연하는 입장이 됐지만.

요즈음은 산업체에도 기초과학 분야의 연구소가 생겨서, 純

粹科學分野의 학생을 연구원으로 뽑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과학연구소를 통해 산학협동이 조금씩 되고 있습니다.

洪鍾微 기초 연구를 위해 기업에서는 조건 없이 지원을 해주어야 합니다. 공과대학 부설연구소의 경우 결과가 안 나오면 그 다음 연구비는 끊어집니다.

효율적인 配布를 해야

司 會 연구 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商品으로 만들어서 어떻게 하면 適材適所에 공급할 수 있는냐는 문제가 마지막으로 제기될 것입니다. 配布나 네트워크의 문제도 연구소의 운영을 효율화하는 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관해 말씀을 나누어 보기로 하죠.

黃元九 研究報告를 봤건, 論文이 됐건 質이 좋으면 몇 천부를 적어도 在庫가 남지 않습니다. 연세대학교 國學研究院의 경우 學報를 처음 3,000부 적었는데, 10년 동안 계속 내다 보니까 재고가 전혀 남지 않더군요. 좋은 보고서, 좋은 叢書, 좋은 논문집을 내면 외국에서 교환하자고 연락을 해오는데, 그것을 통해 유대관계가 맺어집니다. 기관지의 질을 높이면 배포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된다고 봅니다.

司 會 물론 질을 높인다는 것은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이 다 갖추어졌을 때 가능한 것이겠죠. 그러나 일단 연구 결과가 나오면 適所의 필요한 사람에게 배포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제가 일하던 연구소는 法定研究所가

아닙니다. 학교에서 법정 연구소로 만들라고 여러 번 종용을 했지만, 법정 연구소로 만들면 여러 가지 행정적인 간섭 때문에 안 만들고 있습니다. 조그만 연구소지만, 유엔 기구로부터 연구비도 받고, 또 回報도 매년 내는데, 세계 각 기관에 배포합니다. 물론 우편료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 대신에 전혀 보내지 않은 쿠바에서도 요청이 옵니다. 우편료를 낼테니 당신네 回報를 보내 달라고 말입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배포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질이야 갑자기 높일 수는 없지만 말이죠. 그 밖에 다른 좋은 방안은 없습니까?

黃元九 學術振興財團에서 시도하고 있는데, 국내에서 구하기 어려운 외국의 논문집을 구해다가 비치해 놓고, 국내의 교수들이 편지로 요청해 오면, 복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기구를 확충해서 인문·사회·자연과학 전 분야를 망라하는 일종의 情報센터를 만들어야 합니다. 물론 정부에서 돈을 많이 내서 만들어야겠지요.

洪鍾徽 자연과학 분야에서선 서울대 自然科學綜合研究所에서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綜合情報센터를 두어야

黃元九 그런 정보 센터에선 세계 각지의 연구소에서 나오는 논문을 다 수집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 소련에서 나오는 우수한 논문을 구입하여, 露語를 모르는 국내 학자를 위해 영어나 국어로 번역하여 배포해야 합니다. 미국이나 소련에는 그러한 센터가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소련의 수학잡지를 구입하여 영어로 번역해서 배포하고, 또 소련에서는 미국의 수학 잡지를 구입하여 露語로 번역해서 배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은 정부에서 대학 부설연구소를 지원하는 한 측면이 될 수 있습니다.

金世源 學術振興財團과 같은 기관에서 자료나 정보를 수집해서 제공해 주어야 합니다. 인문·사회과학 분야의 경우 국내에 어떤 연구소가 있으며, 거기에서 어떠한 잡지나 刊行物이 나오는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의 책자로 묶어서 내는 것도 필요합니다.

司 繪 그렇게 할 수도 있구요. 각 분야를 다 망라할 수 없다면, 관련 연구소간의 네트워크를 형성해 볼 수도 있습니다. 연구소 단위로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정보를 교환해야 합니다.

金世源 지금의 연구소의 인적 구성으로는 어렵지 않을까요. 지금은 기껏해야 조교를 시켜 도서관에 가서 어느 대학에서 무슨 보고서가 나왔는가를 조사하는 게 고작이죠. 그것을 전달하는 機構가 있어야 합니다.

安承泰 정보를 수집·제공하는 綜合情報센터를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기초과학을 다지는 데 측면적인 지원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司 繪 오랜 시간 동안 유익한 말씀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논의된 여러 方案들은 대학 부설연구소를 활성화하는 데 주요한 주춧돌이 될 수 있으리라 믿어 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